컴퓨터 책은 '공룡'인가

1천쪽 분량 넘어선 컴퓨터 책들 … 포켓판형 책도 등장

컴퓨터 책들이 외형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책이 어느 한도까지 두꺼워질 수 있는지 시험하는 듯한 경쟁적인 몸집 불리기와 군더더기를 빼고 알짜만 전달하려는 컴퓨터 책의 다이어트로 대별되는데, 덩치를 앞세운 책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다이어트가 21세기의 종교로 받아들여질 만큼 모든 분야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컴퓨터 책은 살찌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의 책들과 비교해도 유별나다. 두껍게 한권으로 나왔던 소설이 재판 때는 두세권으로 나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꺼운 책의 대명사인 토플·토익 책들도 분책으로 출시된 것이 있다.

출판사의 '폭리소매' 잇속도 한몫

지난해 연말을 기해 컴퓨터 관련서는 1천쪽을 돌파했다. '바이블'이 제목에 덧붙여진 책이 쉽게 눈에 띄는 점도 컴퓨터 책 1천쪽 시대를 시사하는 대목. 이 책들은 책값 역시 만만찮은데 2~3만원대가 주류를 이룬다. 컴퓨터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데는 우선 원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주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레퍼런스 북'의 경우, 미국에서 나온 책을 그대로 번역해 출간하는 관계로 원서가 두꺼우면 번역서는 더욱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대형서점 외서부의 컴퓨터 관련 책꽂이에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 즐비하다. "번역서가 없을 경우 원서를 찾는 이들이 많다"고 교보문고 외서부의 정해준씨는 전한다. 아무리 두껍고 값이 비싸도 인기있는 것은 하루에 세권 정도 나가고, 주말이면 더욱 판매량이 많아진다.

컴퓨터 책이 두꺼워지는 또다른 요인은 컴퓨터의 속성과 연관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버전이 높아지면서 성능은 다양해지고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사용법을 설명하는 교범도 자연 부피가 커지게 된다. 문제는 새 판을 짜지 않고 구판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출판사의 안일함에 있다. 이것은 시험제도가 바뀔 때까지 두꺼워지기만 하는 수험서의 생리와 일치한다.

책의 대형화 바람은 컴퓨터 입문서에도 불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나온 《컴퓨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홍익미디어 CNC)는 파격적이다. A4판 1,006쪽에 값은 3만 6천원이다. 방대한 분량에다 만만찮은 가격임에도 독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하루에 5백~1천부 가량 주문이 들어온다고 출판사측은 말한다. 서울시내 대형서점의 컴퓨터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들어갔다.

이 책은 컴퓨터 전문가 여덟명을 동원해 윈도우 95·한글 96·엑셀·인터넷 등을 설명한다. 특기할 사항은 브라운관을 통해 잘 알려진 시사평론가 박원홍씨에게 입문편을 맡긴 점. 전유성·이현세·서세원 등 인기인의 유명세를 제목에 반영시킨 컴퓨터 입문서와는 달리 박씨는 광고에서만 부각된다. 이 책에 대한 출판사의 애착과 긍지는 대단한데, "이 책 한권에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을 담으려 했다. 다른 책 10권 합친 것을 능가한다"고 신정진 대리는 말한다.

> '종이추방'을 외치며 등장한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책은 역설적으로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다. 마냥 두꺼워지는 컴퓨터책에 대해 '폭리소매'를 추구하기 위한 출판사의 잇속차리기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마냥 두꺼워지기만 하는 컴퓨터 책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먼저,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형식문화가 컴퓨터 책을 '공룡'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70년대의 《타임》지가 90년대에는 전화번호부같은 컴퓨터 책으로 환생한 셈.

다음은 이런 과시욕에 편승한 출판사들의 잇속차리기. 컴퓨터에 능숙한 한 대학생은 "분책해서 내놓으면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컴퓨터 기종의 사이클이 짧은 것과 비례해 관련서의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박리다매'보다는 '폭리소매'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국내 컴퓨터 책의 비대화는 날로 컴팩트해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영진출판사 한상준 기획실장은 지적한다. 또한,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기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론 전달이라는 매뉴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컴퓨터 관련서가 오래 소장하고 애독하는 장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첨단 매체인 컴퓨터를 다루는데 낡은 매체인 두꺼운 종이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이지만, 책의 부피는 1천쪽이 한계점으로 보인다. 제본과정의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 컴퓨터 책들은 페이퍼백으로 나오는 탓에 너무 두꺼우면 펼쳤을 때 책이 갈라지기 쉽다. 그래도 《윈도우즈95 바이블》(대림)은 1366쪽에 이른다.

'압축파일'식의 간편한 책도 경쟁

뚱뚱한 책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거품을 빼고 날씬해진 책들도 많다. 이들은 시리즈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Alt+X'시리즈(성안당)는 이 분야의 원조. 95년 봄 《한글2.5》가 나온 이래로 《홈페이지 만들기》까지 서른 여덟권이 나와 있을 정도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시리즈는 1백쪽 안팎에 값은 4천원이다. '10분 가이드'(인포북), '잠깐만요'(한국컴퓨터 매거진), '작은책'(한컴프레스) 등은 아예 포켓판형으로 나오는 시리즈물이다.

'할 수 있다' 시리즈(영진출판사)는 5~6백쪽에 달하는 책을 2백쪽대로 줄인 '압축파일'이다. 화면 출력 그림을 많이 넣어, 따라하면서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할 수 있다' 시리즈 가운데 한글 윈도우 95·한글 워드 95·한글 엑셀·인터넷 등을 패키지로 엮은 '할 수 있다! 종합선물 꾸러미'도 내놓았다.

한권에 컴퓨터에 관한 것을 몽땅 담았든, 필요한 내용만 간편하게 만들었든, 아니면 꾸러미로 엮었든 어차피 선택은 독자에게 달렸다.

컴퓨터 입문서를 컴퓨터 공포증 해소용과 공포증이 해소되고 나서의 컴퓨터 배우기로 나누는 이기성 교수(계원조형예술대학 전자출판과)는 "초보자에게는 배우는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곤란하다"고 말한다. — 최성일 기자

'전화번호부'를 방불케 하는 1천쪽 이상의 책들과 포켓판형의 날씬한 책들이 나란히 선보여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